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젊은이주일입니다. 젊은이사랑방에서 예배를 주관합니다.
- 탁구대회 결승전을 오후 2시부터 교육관에서 진행합니다.
-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에제르' 모임이 26일(월)-27일(화) 옥천에 있는 라파공동체에서 모입니다.

제 42 - 21 호

2025년 5월 2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어람 집사 (생일 감사)
김성흠 청년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임세진 집사 (생일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여!

< 우물가에서 흐른 생명의 물 >

뜨거운 태양 아래, 한낮의 고요한 우물가에 여인이 홀로 다가왔다. 수많은 삶의 무게와 상처를 안고, 마음 깊은 곳 갈증을 감추려 애쓰는 듯했다. 그녀는 물동이를 들고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그곳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였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멀리했던 그 시절, 그는 벽을 넘어 다가와 “한 모금 물을 달라”고 말했다.

그 짧은 부탁에 여인은 놀라고, 또 의아해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할 수 있나요?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명의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 말은 갈증에 목마른 그녀에게 한 줄기 시원한 샘물 같았다. 생명의 물이라니.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그녀 마음 깊은 곳에 닿아 오래된 상처를 적시고, 희망의 싹을 틔웠다.

여인은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에. 그날 이후, 그녀는 변했다.

우물가를 떠나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이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꿀 분”이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그녀의 진심과 빛나는 눈동자에 이끌려 우물가로 모여들었다. 그곳에는 이제 단순한 물이 아닌, 삶을 바꾸는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갈증이 있다. 외로움, 상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우물가에서 만난 그 눈빛은 속삭인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의 글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바로 ChatGPT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를 감동적인 수필형식의 1000자 내외로 써줘'라고 프롬프트(AI에게 입력하는 질문이나 지시)를 넣어 단 1초 만에 얻은 결과입니다.

20년 전에 PC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10년 전 스마트폰이 나오고 보급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시대가 오며 정말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필요한 질문에 단 1초면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방대한 지식으로 답변을 하고 임금협상을 위해 대화할 필요없이 단순 반복되는 노동과 고임금의 인력이 필요한 일들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사TV 프로그램에선 ChatGPT 속에 내가 나에게 맞게 설정한 애인에게 이름을 부르며 함께 여행하고, 나의 감정을 잘 읽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AI 때문에 사람 애인과 헤어짐을 결심한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사람과 연애하다가 AI의 연인을 갖게 된 사람들은 모두 사람보다 AI를 선택하겠다는 답변을 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경쟁을 넘어 AI와도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지만 교회에는 가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는 ChatGPT로 하겠다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구별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한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던 앞으로 사라질 거라 예상한 직업들의 목록도 수시로 바뀌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 속에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하는 지혜와 힘을 갖기를 소망하며, 청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태복음 11 : 28-30 인도자
64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대표기도)

갈라디아서 2 : 20 인도자
575 다함께
권영우 젊은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열왕기상 3 : 3-14 장성아 젊은이
성가대 찬양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104) 젊은이사랑방
설교 “ 지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 정태일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342 다함께
석지인 젊은이
410(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성찬 조이서 / 봉헌위원 : 박예찬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신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짓 정보와 거짓 영이 넘치는 혼란한 시대에
저희 모두에게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지혜,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말씀하셨고, <5>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
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9> 구하였
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11>

분별력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솔로몬 왕은 왜 지혜를 구하
였을까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선과 악을 분별
할 수” <9> 있기 위해서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실 때
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 <11> 하였기 때문에 준
다고 하셨습니다. 재판에는 ‘분별력’이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력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온갖 거짓이 넘치는 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 분별
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분별력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역사
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태일 목사 / 기도 : 정혜라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이번 주는 역사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공주로 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먼 거리를 떠나지만 차에서도 즐겁게 잘 놀고, 잘 때 우는 친구 한 명 없이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첫날 우리는 기독교박물관에 갔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6.25를 지나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경을 버티고, 이겨내며 이 땅에 여러 사역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날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그늘이 있는 연미산 자연미술공원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60가지의 자연물을 이용한 작품들은 아이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게 했습니다. 공주의 설화를 가지고 만든 작품들부터 꾸러기들 몸보다 훨씬 큰 작품들, 올챙이 친구들과 물고기 친구들도 볼 수 있어 아이들은 갈수록 신나게 공원을 둘러봤습니다.

다음 날 국립공주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무령왕릉을 지키는 상상의 동물 '진묘수'도 만나고, 섬세하게 만들어진 백제의 보물들도 만났습니다. 또 어린이박물관으로 가서 아주 재미있는 체험을 했습니다. 날씨도 덥고, 조금 먼 공주였는데 꾸러기들은 공주가 너무 재밌었다고 합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5월이 시작된 지 며칠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5월에는 가정에 달이라는 이름에 맞게 몇 가지 행사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나니 훌쩍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있던 모든 행사를 마치고 이번 주는 오랜만에 조용하고 차분히 학교 생활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며 보냈습니다.

어린이학교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책임마, 책아빠가 들어오십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전, 30분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위해 일부러 집과 직장에서 잠시 들러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십니다. 특히 우리 엄마나 아빠가 오셔서 책을 읽어주실 때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답니다. 밖에서 노는 것이 더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거의 모든 어린이들은 이 시간을 기다리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는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러 오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주룩주룩 내리는 비와 함께 들쭉날쭉하는 날씨가 찾아왔던 한 주였습니다. 더울 땀 에어컨이 그리워질 정도로 후덥지근하고, 밤에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이 아픈 멋쟁이들도 더러 생겼지만, 수업과 생활은 계속 이어져갔습니다.

목요일에는 공동심화학습 <우리말 탐구> 2회차를 했습니다. 사자성어와 속담 위주로 외워보며 정답을 맞추면 간식을 획득하는 퀴즈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일제강점시대에서 우리말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말모이>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멋쟁이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 비져나왔던 영화였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이번 주 생활표어는 <고운 말을 사용하자>였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생활에서 간간히 보면서, 꽤 기특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좋은 말이 입과 가슴에 정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정진하면 좋겠습니다.

< 교사 : 이어진 >

이제 조금씩 보여요.

이 곳 그루터기로 온 지도 벌써 세 달 하고 오일째다.

공동체로의 발걸음은 신앙의 터닝 포인트이고 인생의 중간점검이었다. 짐의 무게가 삶의 무게처럼 느껴져서 버릴 것과 지닐 것을 구분하고 내가 지금 사라져도 남은 사람에게 거창하지 않고 고요하고 단정한 것들을 치우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리를 했다. 그리고 먼저 그렇게 살고 계신 공동체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섞이고 싶었다. 그렇게 단출하게 시작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은 세상의 깊은 피로와 땀지모를 쓸쓸함을 밀어내 주고 있다.

내가 살게 된 집은 그루터기 초입에 있고 창밖은 바로 길이 내려다보인다. 하필 나의 테이블과 의자는 거실창 밑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다 보인다. 가끔은 동향을 살피는 스파이가 된 거 같아 일부러 커튼을 걷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런데 아무리 눈길을 주지 않으려 해도 아침에 보게 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나에겐 작은 울림이 되고 있다. 아직 내가 잠옷 차림일 때 *권사님은 서둘러 감은 덜 마른 머리카락을 날리며 매일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 가신다. 아하! 그래서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놓고 둘러앉아 식구가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또 주일 아침은 어떨까. 내가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온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 일찍부터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 주방으로 향하는 걸음, 주변을 살피러 가는 걸음, 운행을 하러 가는 걸음, 주보를 만들러 가는 걸음, 밭으로 가는 걸음.... 저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평화의 예배를 맞이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와 축복을 잠시나마 빌어 드리게 된다.

몰라서 못 본 것들이 많았고, 몰라서 덜 사랑한 것들이 많았고, 몰라서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음을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 투성이며 주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임을 알게 되는 이곳 생활이다.

얼굴이 환해졌다는 말, 좋아 죽겠는 얼굴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무슨 때론이 굴러 떨어 진 것도 아닌 갑자기 가족의 합격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닌 자기 부족함을 발견하고 살필 수 있음이라는 이 역설적인 신비 때문임을 알고 감사드린다.

그루터기사랑방 하경임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363, 379

성 경 : 이사야서 62장

말 씬 :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과 구원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위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종결 >
가자지구의 평화와 하루빨리 전쟁이 종결되어 더이상 무고한 희생이 없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에제르 모임을 위해>
공동체 여성 지도자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히 하여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주에 있을 에제르 모임에 참된 위로와 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 ㉠ 가정의 달을 맞아 더욱 가족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 ㉡ 젊은이 주일을 주관하는 젊은이들이 더욱 든든한 신앙인으로 자라하기를.
 - ㉢ 꾸러기학교가 공주 여행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생활공동체 소식 >

날씨가 변덕을 부려 오락가락 비를 뿌리고 때 아닌 무더위가 찾아왔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밭일은 계속되었고, 공동체에 꽃동산을 만들기 위한 꽃씨 심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밭을 가득 메운 상추와 작물들을 보면서 매일 이른 아침에 밭을 일구는 식구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랑방의 먹을거리는 점점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